



은애가 엄마께 드린 책

|   |   |   |  |   |   |   |   |
|---|---|---|--|---|---|---|---|
| 동 | 백 | 이 |  | 보 | 이 | 더 | 라 |
|---|---|---|--|---|---|---|---|

안정희 ·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



## 엄마께

엄마, 나는 엄마 이야기를 생각보다 잘 몰라요.

반찬가게 앞에서 손님 맞던 엄마, 라디오 따라 노래하던

엄마는 아는데, 그 전의 엄마는 잘 몰라요.

일주일에 세 번만, 생각나는 대로 들려줘요. 한 권이 되면  
민수랑 같이 읽을게요.

2026년 3월 1일

은애 드림



## 차 례

|    |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요즘의 엄마         |      |
| 2  | 통영, 태어난 동네     |      |
| 3  | 국민학교 가던 길      |      |
| 4  | 다섯 남매의 둘째      | 쓰는 중 |
| 5  | 사춘기와 단짝 친구     | 쓰는 중 |
| 6  | 아빠를 만나다        | 쓰는 중 |
| 7  | 배 엔진 수리와 신혼 살림 | 쓰는 중 |
| 8  |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  | 쓰는 중 |
| 9  | 가장 바빴던 시절      | 쓰는 중 |
| 10 | 기억에 남는 나들이     | 쓰는 중 |
| 11 | 고마운 사람들        | 쓰는 중 |
| 12 | 엄마는 언제 제일 행복했어 | 쓰는 중 |

# 1

## 제 1 장

### 요즘의 엄마

“

나는 요새가 제일 편하다. 바쁜 거 다 지나고 나니까 동백이 보  
이더라.

엄마의 말

---

엄마, 요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해요?

### 노래 한 곡으로 여는 아침

아 침에 눈 뜨면 라디오부터 켜. 그 아침 여섯 시에 하는 거.

노래 한 곡 듣고 나서야 일어나지. 가게 할 때는 눈 뜨자마자 시장 나가느라  
그런 거 몰랐는데, 요새는 노래 한 곡이 아침이야.

QR



엄마 목소리로 듣기

실제 책에는 이 자리에 녹음을 여는 QR이 들어가요



이번 주에 엄마를 웃게 한 일은 뭐였어요?

## 화면에 코만 나온 할머니

화요일에 민수가 영상통화를 했는데, 손주가 할머니 동백꽃 보여 달래.

베란다 화분 들고 이리저리 비춰 주는데 내가 화면에 코만 나왔대. 다들 한참 웃었다.

은애가 남긴 한마디

엄마 그 화분 아직 있어요? 다음에 가서 볼게요



지금 당장 떠난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?

## 바람 덜 부는 날에 다시

떠난다면 거제 바람의 언덕.

아빠랑 젊을 때 한 번 갔는데,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사진 한 장을 제대로 못 찍었어. 그래서 다시 가 보고 싶다. 이번에는 바람 덜 부는 날로.

QR



엄마 목소리로 듣기

실제 책에는 이 자리에 녹음을 여는 QR이 들어가요



마무리하며 · 요즘의 엄마를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?

## 느긋함

한 단어로 하면 "느긋함"이다.

나는 요새가 제일 편하다. 바쁜 거 다 지나고 나니까 동백이 보이더라.

## 제 2 장

|   |   |   |  |   |   |   |  |   |   |
|---|---|---|--|---|---|---|--|---|---|
| 통 | 영 | , |  | 태 | 어 | 난 |  | 동 | 네 |
|---|---|---|--|---|---|---|--|---|---|

“

그 소리가 나면 아버지가 바다에서 무사히 들어오신 거였어.

엄마의 말

통영에서 살던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?

## 서호동 언덕배기 집

**통** 영 서호동 언덕배기 집. 마당에 우물이 있고 장독대가 한 줄로 쭉 있었어.

방이 두 칸이었는데 우리 다섯 남매가 한 방에서 다 잤다. 겨울에 이불 하나 가지고 서로 당기고 그랬지.

QR



엄마 목소리로 듣기

실제 책에는 이 자리에 녹음을 여는 QR이 들어가요



그 집에서 아침마다 들리던 소리는 뭐였어요?

## 통통배가 들어오는 소리

새벽에 통통배 소리. 통통통통 하고 들어오는 소리.

그 소리가 나면 아버지가 바다에서 무사히 들어오신 거였어. 엄마가 그 소리 듣고 나서야 부엌에 불을 땀다.



엄마 목소리로 듣기

실제 책에는 이 자리에 녹음을 여는 QR이 들어가요



외할머니가 자주 해 주신 음식은 뭐였어요?

## 모르고 먹던 된장국

외할머니는 멸치 넣고 시래기 된장국을 자주 끓여 주셨다.

지금 내가 끓이는 된장국이 그 맛이다. 너는 모르고 먹었겠지만.

은애가 남긴 한마디

엄마 이거 알고 울었어. 다음에 끓이는 법 알려 주죠



마무리하며 · 그 집에 다시 간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보고 싶어요?

## 장독대 옆 그 자리

장독대 옆에 앉아서 바다 내려다보던 자리. 거기 한 번만 다시 앉아 보고 싶다.

## 제 3 장

## 국 민 학 교 가 던 길

“

그때 나는 겁이 많았는데, 겁나도 학교는 꼬박꼬박 갔다.

엄마의 말

소풍날 도시락에는 뭐가 들어 있었어요?

## 일 년에 한 번 사이다

소

풍날은 김밥이 아니고 주먹밥이었어. 깨 묻히고 멸치 볶은 거 넣은 거.

삶은 계란 두 개하고 사이다 한 병. 사이다는 일 년에 소풍날 한 번 먹는 거였다.

QR



엄마 목소리로 듣기

실제 책에는 이 자리에 녹음을 여는 QR이 들어가요



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어요?

## 손을 잡고 같이 써 주신 선생님

3학년 때 김 선생님. 내가 글씨를 빼뜰게 쓴다고 혼나는 대신 손을 잡고 같이 써 주셨다.

그 손이 따뜻했던 게 아직 생각난다.



어릴 때 받은 선물 중 제일 아낀 건 뭐예요?

## 일요일에만 하던 빨간 머리핀

언니가 준 빨간 머리핀. 시장에서 산 건데 언니가 자기 거 안 사고 내 거를 사 왔어.

그거 잃어버릴까 봐 학교 갈 때는 못 하고 일요일에만 했다.



엄마 목소리로 듣기

실제 책에는 이 자리에 녹음을 여는 QR이 들어가요



마무리하며 · 국민학교 때의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?

## 겁나도 꼬박꼬박

그때 나는 겁이 많았는데, 겁나도 학교는 꼬박꼬박 갔다.

정희야, 그거 잘했다. 그렇게 말해 주고 싶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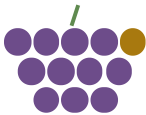
다 읽은 날

## 서로에게 남기는 한마디

이 책을 다 읽은 날, 엄마와 가족이 한마디씩 손으로 적어 주세요.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

엄마가 들려준 이야기 12편, 한 알씩 여문 한 송이

이 책은 안정희 님이 2026년 3월 2일부터 2026년 3월 22일까지 은애의 질문에 글과 목소리로 답한 이야기를 엮었습니다.

이야기 12편 · 목소리 6편 · 12장 중 3장 (완성 3장)

엄마의 말은 그대로 두고, 군말과 받아쓰기 오류만 걸러 문단을 나눴어요.

하루담 · 10월 27일 엮음